



마음의 고향

찬미 예수님! 어느덧 임관 후 2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장병들과 동고동락하다 보니 문득 '마음의 고향'이라는 말이 화두로 다가왔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이루고 싶은 소원이 한 가지 있다고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그 소원은 "하루빨리 자녀들을 성당에 데려와야 하는데..."라는 소원입니다. 이러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여러 순간이 있습니다. 그중 한 순간이 바로 군대입니다.

저도 용사들에게 "성당에 어떻게 오게 되었나?" 물으면, 용사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할머니께서, 부모님께서 성당에 다니셔서요", "어릴 적 성당에 다녔었는데 쉬다가 다시 나가보고 싶어서요"라는 이유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성당에 나오고자 하는 이유가 낯선 환경과 낯선 이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낯선 지금, 나도 모르게 자연스레 내가 가장 기대었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느님을 찾아다녔던 곳, 평안했던 장소와 시간을 본능적으로 찾는 것이 가려진 본질적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의 고향" 하느님을 처음 당신을 찾았던 순간과 같이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사들을 바라보며, 저에게는 소소한 소원이 생겨났습니다. 미사 시간에 참례하는 모든 장병들에게 미사에 참여하는 시간, 그리고 미사 속 강론의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에 씨앗으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 하느님을 잊고 살아갈 때, 다시금 하느님을 기억하고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말입니다.

이곳이 하느님의 포도밭, 우리 마음의 고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부터 하느님께 들은 것을 그대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라를 수호하는 장병들을 위해 기도를 청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있는 이들입니다. 우리나라를 수호하는 장병들의 마음속에 하느님의 평화와 건강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해 주십사 청해봅니다.



주경환 십자가의 요한 신부 | 군종(총장성당)

주일 진레

제 1 독 서	이사 5,1-7
화 답 송	◎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제 2 독 서	필리 4,6-9
복 음	마태 21,33-43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시편 33,5)

오늘은 제56회 군인 주일입니다. 올해부터는 교구장님들의 동의하에 ‘군인 주일’ 행사를 10월 첫 주에서 둘째 주일로 이동하여 지내게 되었습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군인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 무척 기쁜 마음입니다.

군인 주일을 맞이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전후방 각지에서 국토방위에 수고하고 있는 국군장병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인들을 위해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7월에 발생한 ‘극한 호우’는 우리나라 곳곳에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남겼습니다. 제방이 무너지며 터널 안으로 부지불식간에 밀려든 강물에 생명을 잃은 분들의 슬픈 소식은 아직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특히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해병대원의 죽음은 지금도 충격으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이어진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많은 육·해·공·해병대 장병들이 수재민을 돕고자 살인적인 더위를 무릅쓰고 수해 현장에서 봉사하였습니다. 이렇듯 군인은 나라의 천재지변과 여러 비상 상황에 어느 곳이든 제일 먼저 달려가 도움의 손길을 내뻗치며, 평화의 사도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종교구도 피해지역의 복구를 돕는 병사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군종신부들은 간식을 준비하여 땀과 진흙으로 범벅이 된 병사들을 위문하며 고통에 동참하였습니다. 재난의 복구를 위해 신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격려와 힘을 보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루카 15,4)

한국천주교회의 신자 통계에 보면, 2012년 20~24세 남녀 영세자는 전 교구를 합해 30,000여 명이었고, 그중 군종교구에서 세례를 받은 인원은 27,000여 명이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100명 중에 87명이 군 생활 중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2년도에 군종교구에서의 세례자 수는 1,700여 명으로 급감하였습니다.

군대 안에서 영세자가 급감한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19의 여파였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향한 젊은이들의 냉담함과 과거와 비교해 다양하게 보낼 수 있는 자기 계발의 시간, 휴대전화 사용 등이 안타까운 현실의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군종신부들은 예전의 종교활동으로 복귀하기를 희망하며 ‘찾아 나서는 사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선사해야 합니다. 성당에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중장년 신자분들이 대다수인 교회의 현재 모습에 만족해



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교회는 전투가 끝난 뒤의 야전병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치발타 가톨리카와의 인터뷰, 2013) 상처를 치유하고 믿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이 감싸주는 것이 사목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나는 심고 아꼈던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1코린 3,6)

올해 저의 사목지침은 ‘선교의 열매, 세례성사!’입니다. 그간 한국천주교 안에서 청년 영세자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군종교구 영세자 수가 줄어들었음에도 교회 문을 두드리는 장병들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건상 장기간 교리교육을 할 수는 없지만 군종신부, 수녀, 군선교사들은 열성을 다해 이들을 가르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실을 맺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라고 믿으며, 군대 안에서 성실히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신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이유에서 신앙생활을 잠시 ‘쉬고 있는 신자들’을 찾아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본당 사목방문을 할 때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쉬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CBCCK 통계에 따르면, 10년 전만 해도 주일미사 참석률은 43%였던 것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2년에는 11.8%까지 떨어졌습니다. 군 성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젊은이들로 구성된 군대 안에서 병사들을 위한 ‘영적 돌봄’은 무척 중요합니다. 때문에 오늘도 군종신부들은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부대와 훈련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젊은 병사들은 우리나라와 한국천주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이사 4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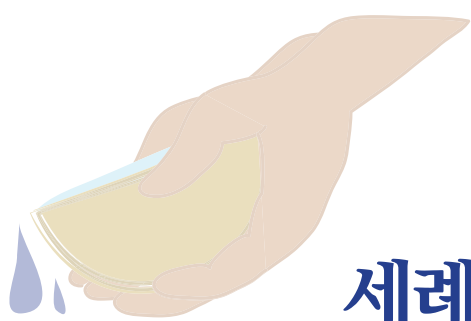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와 지원이 없다면 군종사목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자 형제, 자매인 장병들이 건강히 군 복무를 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앞에서 이끌어 주는 것은 군종신부들의 책무입니다. 아울러 형제자매님들의 기도와 물질적 지원은 군종사목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홍수와 태풍으로 심신이 고달프실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과 함께 하느님의 축복을 전해 드립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16) 그리고 그분은 “자애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과 자애가 병사들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형제들이 있는 부대에 가득 하시길 기도합니다.

2023년 10월 8일 군인 주일에
천주교 군종교구장 서상범 티토 주교



세례성사와 교회법 (3)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 명례성지

Q 대세代洗는 무엇이며, 누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A 대세는 죽을 위험에 있거나 죽음을 앞둔 순간에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어느 누구라도 간략한 예식으로 베풀 수 있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는 약식세례를 뜻하는 ‘Baptismus simplex’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법에서는 “세례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와 탁덕과 부제이다.”(제861조 1항)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정규 집전자가 없거나 장애되는 경우에는 교리교사 또는 교구 직원에 의하여 이 임무에 위탁된 다른 이가, 더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당한 의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적법하게 세례를 줄 수 있다.”(제861조 2항)라고 전합니다.

이처럼 대세의 중요한 조건은 세례의 정규 집전자가 없거나 장애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죽을 위험에 있거나 죽음을 앞둔 분이 세례를 받기 원한다면 우선 본당 신부님께 알려야 합니다. 신부님께서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른은 신앙의 주요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세례를 받을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리스도교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면 세례 받을 수 있다.”(제865조 2항)라는 조항에 따라 그 사람이 비상세례를 받을 조건이 된다고 판단하여 직접 가거나 다른 정규 집전자를 보낼 수 있다면 비상세례를 받게 되고, 신부님께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교리교사나 임무를 위탁받은 다른 사람이 가서 대세를 주어야 하며, 이런 상황도 되지 않을 때에는 누구라도 대세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대세를 주고 난 후에 본당 신부님께 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례의 정규 집전자를 대신하여 세례를 베풀다고 ‘대세’代洗라고 불리지만 세례의 효과에는 부족함이 없는 유효한 세례입니다. 유효한 세례가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자연수를 이마에 부으며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에게 세례를 줍니다.”라는 형식으로 수여되어야 하니, 대세를 집전하는 사람은 유효하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 형식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대세를 집전한 사람은 ‘대세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당에 꼭 알려야 합니다.

대세를 받은 사람은 유효한 세례를 받은 신자로서 신앙의 혜택들을 누릴 수 있지만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들이 더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세를 받은 사람이 건강을 회복한다면 정식 교리들을 받고, 대세를 받을 때 생략되었던 다른 예식들을 정규 집전자에게 보충 받는 보례補禮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시기에 신부님들께서 병원 출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득이하게 대세를 받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신자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올바른 대세의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교육과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영혼의 목자들 특히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례 주는 바른 방식을 배우도록 애써야 한다.”(제861조 2항)



신선한 교육으로 더욱 다져지는 공동체 정신 서포선교본당

황광지 가타리나



곤양성당



봉계성당

가을 햇살 아래 성모님의 미소와 손길이 고루 퍼져 포근한 뜰이다. 이곳에 들어선 사람들의 모습 또한 푸근하다.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고 활기찬 몸짓을 더하며 서로 다독거린다. 작은 성전에는 교우들이 빼곡하게 자리했고, 왼편 앞자리 세 칸에 자리한 성가대가 연습에 한창이다. 시골 성당이라고 만만하게 볼 게 아니다. 테너 파트가 보란 듯이 화음을 만든다.

없는 게 없는 선교본당

이 성당은 놀랍게도 주일미사에 참여한 남성 신자들의 비율이 상당하다. 여느 성당과는 달리 보기 드문 현상이다. 주말마다 본가에 들린다는 젊은 부부의 어린아이 둘은 성전에 기쁨을 더하고, 인근 관광지를 찾은 여행자들의 방문 또한 활기를 더한다.

신자들은 미사 전에 일찍 도착하여 성전 입구에 비치된 메모지에 그날의 성경구절을 적거나 매일미사 책에 표시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며 전례에 임한다. 이어지는 미사는 한마음으로 엮어서 올리는 정성이 물씬하다. 공지사향 시간에는 이 달에 축일을 맞이하는 두 사람이 앞으로 나오니 안수와 선물을 전하고 축가가 울려 퍼진다. 미사 후에는 한 자매가 신자들의 많은 기도에 감사하다고 빵과 음료를 나눈다. 임성진 요한 주임 신부는 이 본당은 규모가 작아 가족적인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처럼 신자들이 작은 일이라도 있으면 떡이나 뭐라도 나누는 일이 매우 빈번하다고 자랑한다.

2007년 12월 서포공소, 곤양공소, 봉계공소를 묶어 서포선교본당이 설립되었다. 공소에는 사제관이 없었으므로 초대 신부는 민박집에서 기거하며, 서포성당과 도로를 사이에 둔 맞은편 주택을 구입하여 사제관을 마련했다. 사제는 세 곳의 사목을 위해 분주히 걸음을 옮긴다.

주일미사는 매주 곤양에서 9시와 서포에서 11시에 있으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6시에는 봉계에서 있다. 평일미사는 화, 수, 목 새벽이나 저녁에 있다. 현재, 곤양과 서포를 합치면 90명 정도의 신자들이 나오고 있고, 봉계에는 소수의 교우들만이 남아 있어 앞으로의 방향도 모색해야 한다. 임성진 신부는 서포 이태영 발렌티노, 곤양 김문길 금구베드로, 봉계 박재민 바오로 사목회장이 하나의 본당 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이루어나가기를 바라며 세심하게 마음을 기울인다.

교구 인력의 자원을 지원받으며

임성진 신부는 교포사목을 마치고 이곳으로 올해 부임했다. 공소시절부터 사제가 없이 살아온 여기 신자들은 스스로 뒤편 해나가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을 알았다. 거기다 조금만 방향을 잡아주면 척척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미사 전 묵상하는 방법을 말했더니 금방 실천하고 있다. 분기별로 교육을 기획하여 신자들의 영성을 북돋우기로 했다. 3월에는 사순음악피정을 실시했다. '너 어디에 있느냐?'를 주제로 하였고, 교구 청년들의 지원을 받아 젊은 기운을 듬뿍 불어 넣을 수 있었다. 8월 교육에는 '본당은 우리'를 주제로 하여 교구 ME봉사자들의 지원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신자들은 공동체의 기쁨을 마음껏 경험하고, 봉사자들 또한 시골 본당의 형제자매들을 알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10월 15일에는 박우곤 알렉시우스 강사를 초빙하여 신앙특강을 계획하고 있다. '우린 별을 따라 가리라'란 주제로 열릴 이날 이 시간도 신자들은 매우 기다리고 있다. 특별한 날에는 공소의 신자들도 함께 모이게 되니 더 큰 축복의 시간이다. 교육이 있어서 행복하고 신심이 깊어지는 것 같다는 어느 신자는 한 5년 이렇게 새로운 시간으로 다져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한다.



뭐라도 거드는 주인정신

성당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뭐라도 거들고 나서려는 주인정신은 너도나도 마찬가지다.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나 토박이나 다를 바가 없다. 본당소개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려는 듯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말하고 귀를 기울인다.

최부용 요한은 북신동성당에서 연령회 총무로 활동하다가, 13년 전에 이리로 오게 되었다. 상장례교육까지 받은 터라 연령회장을 맡으면서 신자들에게 연도 연습을 시키는 등 5년 동안 열성을 다해 활성화를 시켰다. 유희상 바실리오스는 10년 전 밀양서 이곳으로 이주하여 곧 회장을 맡게 되었다. 봉계공소를 수리하던 때가 생생하다. 고생도 했지만, 신앙이 더 돈독해졌다. 회장 5년을 마치고 현재는 연령회장으로 봉사한다. 박봉룡 대건 안드레아는 회장을 6년간 맡으면서 본당 설립 10주년을 맞아 '10년 약사'를 정리했다. 비록 인쇄물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이 작업이 이후의 역사를 보태고 엮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은 꾸리아 단장으로 봉사한다. 임영환 미카엘은 청십자회靑十字會 회장을 9년째 맡고 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딸을 잃은 후, 공동체의 기도와 위로로 이겨내고 몸 바쳐 이 자리를 지킨다. 서포지역에서 제일 오래된 청십자회는 본당의 자랑이자 지역 사회의 자랑이기도 하다. 김병수 아우구스티노는 오랫동안 총무를 맡아 오면서, 여러 회장과 사제를 보필하여 성당 지킴이가 되었다. 지난해에는 김병수 총무의 친형인 베드로 형제가 카푸친작은형제회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다. 당시 많은 신자들이 참석하였고, 이곳 서포성당에서 첫미사를 바칠 때는 수도자들이 성당을 가득 채웠다. 이 태영 발렌티노 회장은 본당 출신 사제의 탄생은 무엇보다도 귀한 일이었다고 그때를 떠올린다. 공소에서 세례를 받고 자라 청십자회를 창립하여 청년 활동을 하며 성장한 그에게는 서포의 역사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

본당의 역사는 아직 짧지만 공소에서 이어져 온 이들의 신심은 깊고 단단하다. 처음 변변찮고 작은 성당을 앞에 놓고, 신자들이 힘을 보태어 한 가지씩 만들고 세우며 점차 어우러지게 했던 15년 시간들이 자랑스럽다고 한다. 모인 사람들은 여전히 열악한 비닐천막 주방이 늘 마음에 걸린다. 그래도 행사만 있으면 열일을 해내는 자매들이 고맙고 미안하다고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표한다.



교구장 서리 동정

추계 주교회의

일시: 10월 9일(월)~13일(금)
장소: CBCK

서품대상자 면담

일시: 10월 14일(토) 11:00/ 장소: 교구청

평협 후반기 연수

일시: 10월 14일(토) 14:00/ 장소: 교구청

진동본당 설립 30주년 미사

일시: 10월 15일(주일) 10:00

교리교사의 날 미사

일시: 10월 15일(주일) 16: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이주민공동체 건진성사

일시: 10월 15일(주일) 14:00
장소: 교구청
집전: 교구장 서리 신은근(바오로) 신부

교구/본당

교구 성경교육 봉사자 월례모임

일시: 10월 10일(화) 14:00/ 장소: 교구청

가톨릭미술인회 일일피정

일시: 10월 14일(토) 10:00/ 장소: 교구청

10월 가나혼인강좌

일시: 10월 15일(주일) 13:00/ 장소: 교구청

제36회 교리교사의 날

일시: 10월 15일(주일) 15:3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위원회/기관/단체

220차 ME주말 안내

일시: 11월 17일(금) 19:00~19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
신청: 전화 및 문자로 접수(문자발송-부부 이름과 연락처, 본당 기재)
문의: 배길우(바오로) 010·2057·3319
안은정(바울리나) 010·4598·7530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중독),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통영시 보건소 옆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1층)
카페: cafe.daum.net/6407795/ 인스타: tygapok
문의: 055·640·7795/ ★일시보호센터 운영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타

성바오로수도회 협력자미사

일시: 매월 셋째 주 목요일 10:00
장소: 신안동성당/ 문의: 055·745·5131

2023년 성령쇄신 전국대회 실시

일시: 10월 14일(토) 09:30~17:30
장소: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강사: 바기스 마태오 파라칼 신부, 조셉 페르난데스
미사: 이병호 빈첸시오 주교, 전국 교구 담당 및 협력 사제단
주관: 한국 가톨릭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
대상: 모든 교우/ 문의: 02·777·3211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10월 15일(주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 입구역 1번 출구)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문의: 010·3817·0567, columban.or.kr

2023 포콜라레 EXPO & 창설 80주년 감사미사

●포콜라레 EXPO
일시: 10월 28일(토) 13:00~18:00
10월 29일(주일) 10:00~18:00
장소: 서강대학교 이나시오관
회비: 1만 원

접수: <http://expo.focolare.or.kr>
●포콜라레운동 80주년 감사미사 및 기념식
일시: 12월 9일(토) 14:00~17:00
장소: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
▶자세한 내용은 www.focolare.or.kr 참조 바랍니다.

병자들을 위한 꽃동네 치유 세미나

일시: 11월 18일(토) 11:00~11월 19일(주일) 16:00
장소: 음성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대상: 모든 병자와 간호하는 가족들
내용: 미사, 강의, 면담, 고해성사, 치유예절과 안수
회비: 7만 원
문의: 010·5490·5345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히브리어, 희랍어: zoom강의)

일시: 수-19:30~21:30 또는 목-10:00~12:00
기간: 2024년 1월부터 1년간/ 회비: 3개월에 30만 원
문의: 작은형제회 김성태 신부 010·4598·6912

나자렛 예수 수녀회 피정

장소: 본원 피정의 집(경남 창원군 성산면 운봉길 25-12)
피정: 개인 피정 및 전례 피정/ 문의: 010·4686·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0: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2층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문의: 010·3551·2038

웰다잉(Well dying) 어른신 건강 특강

일시: 10월 10일(화) 10:00부터
장소: 월남동성당 교육관
강사: 홍승목(미카엘) 원장(미카엘 요양병원)
대상: 희망하는 누구나 참석 가능
주관: 교구연령연합회(웰다잉교육부)
문의: 010·2836·3829, 010·4859·7768
※특강 후 유영봉(야고보) 몬시뇰 주례의 미사가 봉헌됩니다.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10월 9일(월) 19:00	중앙동성당	성령은 누구신가	안찬모 이나시오 신부(삼위일체 수도회)		010·5247·9900
청년	매주(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살레시오회	10월 15일(주일)	창원 젊음의 집	유명일 신부 010·6221·3520	대상: 중1~35세 이하 미혼 남성



지금여기 사진관
김찬우(사도요한) 010-8949-7901
위치: 창원 용지호수앞

제주 3박 4일/ 전국 167곳 성지순례
제주-38만원/ 전국 2박 3일-30만원
베트남·마카오 성지순례 3박 5일 115만원
북해도 나가사키 여타 3박 4일 115만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11월 4일 출발 아말피&시칠리아 트레킹 순례 10박 11일-690만원
■11월 27일 출발 이스라엘&요르단 순례 10박 11일-495만원

bora (주)보나투어 02)732-4578
www.bonamour.co.kr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마산 성바오로서원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에 있던 성바오로서원이 **반송성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많은 이용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창원시 성산구 원대로473번길 25
문의: 055·248·3089/ 010·9753·3089

신세계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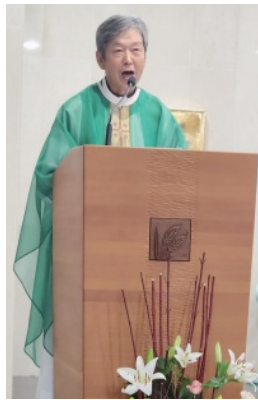
가음동본당 소년 레지오 '천사들의 모후 Pr.' 창단식



가음동본당(주임: 이창섭 아우구스티노 신부)은 9월 16일 소년 레지오 '천사들의 모후 Pr.' 창단식 및 첫 주회를 진행하였다. 천사들의 모후 Pr.은 창원 1 평화의 모후 Co. 소속으로 13명의 어린이 복사단과 성인 간부 2명으로 총 15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소년 레지오이다. 이날 창단식은 레지오 회합을 시작으로 첫 주회 축하식과 함께 이루어졌다. 창단식에는 본당 주임 신부를 비롯하여 본당 수도자, 교구 레지아 단장(백광열 도미니코) 등 창원 1 Co. 가음 1,2 Cu. 간부들과 많은 단원들이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를 하였다. 아울러 천사들의 모후 Pr. 소년 단원들이 끊임없는 기도로 성모님의 용감한 군단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였다.

팔용동본당 '본당 영적 성장을 위한 피정'

팔용동본당(주임: 김길상 안드레아 신부)은 9월 12일부터 15일 까지 '본당 영적 성장을 위한 피정'을 실시하였다. 9월 12일 교구장 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의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이라는 주제 강의로 피정 일정이 시작되었다. 9월 13일은 김 영문 브루노 수사 신부(진동 가르멜 수도원)의 강의, 9월 14일은 조기영 안드레아 수사 신부(프란치스코 수도회)의 강의, 그리고 9월 15일은 김재덕 베드로 신부(대전교구)의 강의와 미사로 피정을 진행하였다. 이번 피정에는 본당 신자를 비롯한 교구 내 신자들이 참석하여 찬양과 함께 팔용동본당 공동체가 힘을 얻고 영적 성장을 얻는 은총의 시간이 되었다.



중간中間

영혼의 트랙

김현주 스텔라 수필가/ 가톨릭문인회

‘중간이 없네.’

지난 여름날 아침마다 투덜거렸다. 36도는 예사로 넘겨버리는 더위로 텃밭 농사랍시고 몇 포기 심은 상추와 꽃씨는 흔적도 없이 녹아내리게 할 만큼 뜨겁거나,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쏟아붓는 비를 몰고 온 태풍의 상처로 극과 극의 여름을 보내며 했던 말이었다. 그토록 기다리던 ‘중간’인 10월, 시원한 바람이 불다 못해 이불을 끌어당기게 되는 새벽에는 역대급 추운 겨울이 올 거라는 예보에 또 ‘중간’을 떠올렸다.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워야 하는 자연의 섭리는 접어 두어도 극명한 온도 차이를 보이는 계절이 있어서 오이냉국, 평양냉면, 동치미 같은 계절 음식이 맛깔나게 전해져 올 수 있었다. 여름 하면 모두의 첫사랑, <소나기>를 떠올릴 수 있고, <남한산성>을 읽으면 겨울을 버티던 궁벽한 삶이 절감되는데 당장 편한 ‘중간’만 있기를 바랐다.

지난주에 내가 가르치는 K가 구구곱셈 5단까지 외울 수 있게 되었다고 담임교사에게 자랑했다. 함께 외우고, 문제 풀이를 할 때는 너무 쉽게 잘 한다 싶더니 일주일 만에 $2 \times 1 = 2$, $2 \times 2 = 4 \dots$ 를 다시 암기시키게 되면서, ‘중간만 했으면’ 하며 안타까워했다. 띄어 읽거나 쓰기는 커녕 글자는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린다. 연말까지 사칙연산과 기본적인 쓰기는 완성시키겠다고 했는데, 매주 되돌이표를 찍으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빌려와 읽어 준 그림책 <비교와 측정>에 “흰발생쥐는 먹이를 구하러 갈 때 눈신토끼가 자기보다 몇 발자국 안 뛰고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을 기분 나빠할까?”라는 내용이 있었다. “눈신토끼 세 발자국은 흰발생쥐 몇 발자국일까?” 하고 물었더니 $3 \times 3 = 9$ 대신, “흰발생쥐가 되고 싶다”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몇 등인지, 어느 학교 출신인지, 연봉이 얼마인지, 몇 평에 사는지 비교하며 살다가 되돌이표로 돌아가 내 아이가 몇 등인지, 어느 학교에 갔는지 비교하며 ‘중간’은 되어야 선 안에 속한다고 생각했다. 뭐든 ‘중간’에 들기만 바란 선생에게 K는 눈발이 뛰어다니는 흰발생쥐가 되고 싶다고 했다. 축구도 잘하고, 아껴 둔 용돈으로 막냇동생에게 줄 과자를 사서 달려가는 다정다감한 형, 반 친구들이 불세라 복도를 걷는 척하다 연구실에 몰래 들어와서 공부하지만 수업에 빠진 적은 없었다. 바지 주머니에서 잘 깎아 둔 연필을 꺼내다가 인사를 잊었다고 벌떡 일어나서 문 앞까지 가서 다시 인사하며 들어오기도 했다.

“선생님! 눈신토끼도, 흰발생쥐도 수학이 필요할까요?”

가만가만 K의 등을 쓰다듬으며, 다음 그림책을 함께 읽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르다(사무 11,1-12,25)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성서학계에서는 꿈란 동굴에서 발견된 성경 두루마리들을 20세기 최고의 발견으로 꼽습니다. 꿈란 네 번째 동굴에서 발견된 사무엘기 단편은 오늘 우리가 읽고자 하는 사무엘기 상권 11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이 단편은 사무엘기 상권 10장의 마지막 절(27절)과 11장의 첫 번째 절(11,1) 사이에 빠져 있는 부분을 알려줍니다. 그 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암몬 임금 나하스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를 공격하여 오른 눈을 다 빼어 버렸으나 이스라엘에는 이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다. 그래서 나하스에게 눈을 뽑히지 않은 채 강을 건너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7천 명은 야베스 길앗으로 도망을 갔다. 한 달 후에.” 이어서 11,1은 암몬 임금 나하스가 야베스 길앗을 포위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곳으로 도망친 7천 명마저 오른 눈을 뽑아 버리기 위함입니다. 야베스 길앗 사람들은 암몬 임금을 섬기겠다고 말하며 평화 조약을 제안하나 나하스는 그 조건으로 각 사람의 오른 눈을 뽑겠다고 말합니다. 꿈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무엘기 단편이 없었다면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나하스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청하고 전령을 기브아에 보내어 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 들이닥쳐 분노가 무섭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겨릿소 한 쌍을 토막 내어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어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나서지 않는 자는 이 토막 난 소처럼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베룩에 이스라엘 30만, 유다 3만 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사울은 야베스 사람들에게 내일 구원되리라는 소식을 전하였고 그들은 기뻐하며 나하스에게 항복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튿날 사울의 군대는 새벽녘에 암몬군의 진영 한복판으로 쳐들어가 한낮이 될 때까지 그들을 무찔러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사울의 승리를 지켜본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무시하던 이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청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에 누구도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을 만류합니다. 사무엘은 이렇듯 훌륭한 지도자의 면모를 보인 사울을 길갈에서 임금으로 세우고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쳤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무엘은 고별사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리더십을 사울에게 넘겨줍니다. 그는 먼저 백성들에게 자신의 지도력을 평가하게 합니다. 자신이 누구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하거나 누구를 억압하고 착취한 적이 있는지, 뇌물을 받고 부당한 재판을 한 적이 있는지 백성에게 묻습니다. 백성들은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또한 사무엘은 구세사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통치에 대해 회고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울부짖을 때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어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느님을 저버린 결과로 외국 임금들의 압제를 받게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판관들을 보내시어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암몬 임금 나하스가 공격해오자 임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하느님께서서는 사울을 그들의 임금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새롭게 도입된 왕정이 존속되려면 임금과 백성이 모두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손이 그들을 치게

될 것이라고 사무엘은 경고합니다. 사무엘은 그의 정치적인 지도력은 사울에게 넘겨주지만 그의 영적인 리더십, 곧 예언자의 권위는 넘겨주지 않습니다. 예언자의 존재는 여전히 참된 주권자이신 하느님의 권능의 살아있는 표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백성과 임금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할 것이며, 그들에게 좋고 바른길을 가르칠 것입니다. 사무엘의 영적인 리더십은 예언자들이 계승할 것입니다.

사무엘과 사울

클라스 코르넬리스 무이아르트(Claes Cornelisz Moeyaert, c.1591~1655)

출처: 성경 미술관(네이버 블로그)

